

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시각예술 분야 심의평

2024. 5. 21.

심의위원장

김 현 주



심의위원

안 소 현



심의위원

박 준 식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 생애 첫 지원-시각예술 분야 】 심의평

2024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생애 첫 지원-시각예술 분야>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5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333명이 지원하여, 유례 없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작 준비를 위한 작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세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생애 첫 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함을 지원자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지원자의 연령대 분포 또한 다양함을 통해 그간 지원사업의 수혜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본 지원사업의 유의미함을 다시금 절감한다. 경쟁률이 높다보니 심의에 있어서 기준이 된 지점은 지원서의 구체성이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작품 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온 시각예술작가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가를 세심히 타진했다. 전작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방향으로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작업에 대해 지원서에 더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이 지점은 심사위원 전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작업 세계의 연도별 나열보다는 2024년 계획이 도출된 면면을 설득력있게 드러내고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수의 작가 선정이겠으나 상대평가 과정에서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 ‘생애 첫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러 세대의 작가들이 공공 기금 제도에 관심을 갖고 도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신작 전시계획서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구체성과 계획의 현실성이었다. 작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세심한 계획을 수립한 지원자를 위주로 선정했다. 또한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설치,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지원자들이 있었던 만큼, 각 분야별로 매체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했다. 특히 동시대 예술에서 다수가 아닌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작업 기회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2024년에는 지원서 간 완성도의 편차가 다소 있었다. 이 편차가 반드시 작품의 질과 직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금 신청 과정에 대한 낯설음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시각예술 분야이고 생애 첫 지원인 만큼, 작품 이미지나 작품의 세부 제작 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지원서의 세부 항목을 만들거나 예시를 제시하면 추후 지원서들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생애 첫 지원사업에 많은 작가분들이 지원했다. 포트폴리오 근거로 기존 작품의 예술성, 표현력, 주제의 명분 등을 살펴보았고, 신작 전시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지원서 작성의 성실도와 그 타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신작의 경우 기존 작업과의 연계성과 주제의 발전(Build-up)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생애 첫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번 심의 시 선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

2024. 5. 21.

심의위원장 김 현 주 독립 큐레이터, 미술 비평가
심의위원 안 소 현 독립 큐레이터
심의위원 박 준 식 작가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 원로예술활동 지원-시각예술 분야 】 심의평

2024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원로예술활동 지원-시각예술 분야>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7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40명이 지원하여, 유례 없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원로작가의 신작 작업 또는 전시개최를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세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원로 예술지원이라는 범주가 무색할 정도로 녹슬지 않은 조형 감각을 보여주는 작가들의 지원에 경의를 표한다. 원로 예술활동의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오랜 기간 작업세계를 구축해 온 지원자들이 많았고, 지원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기금이 안정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원로 예술인들의 경우 작품의 우열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계획의 구체성과 정밀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고 평가했다.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원숙한 작가들의 지원서 중, 선별은 어려움을 지닐 수 밖에 없었으나 창작과, 창작에 기반한 전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인 만큼 기획의 구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포트폴리오와 근작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원서 양식을 원로 예술인들에 맞게 기존 경력뿐만 아니라 신작의 계획을 위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향후 원로 예술활동 지원에 있어서 작가들의 작업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획과 비평, 도록과 같은 결과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더욱 탄탄한 공모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5. 21.

심의위원장	김 현 주	독립 큐레이터, 미술 비평가
심의위원	안 소 현	독립 큐레이터
심의위원	박 준 식	작가